

## 서지정보

서명	일기(日記)
저자(성명/자/호)	미상(未詳)
판사항	筆寫本
책크기	23×17
발행자	
발행년	
주제	생활일기
작성시기	20 세기 / 1922-05-12 ~ 1927-06-17
소장처	(원소장처) 아주신씨 인재파 전암후손가 /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해제

「일기(日記)」는 아주신씨 인재파 전암 후손가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총 165페이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제에 '일기(日記)' 라고 되어 있다. 빈 종이에 날짜와 간지, 날씨와 하루의 중요한 일을 세로로 기록했으며, 절기 등은 날짜 위에 기록하였다.

아주신씨 인재파 전암 후손가의 「일기」는 임술년 5월부터 정묘년 6월까지의 일기이다. 일기의 제일 앞에 1919년 세치(歲值)를 혼원개벽(混元開闢)부터 단군기원(檀君紀元), 조선개국(朝鮮開國) 등 13개 항목으로 자세히 기록해 둔 것으로 보아 1919년 이후의 임술년인 1922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일기」는 1922년부터 1927년까지 일을 기록한 것이다. 편지의 왕래, 방문한 사람들, 꿈에서 대부를 본 일, 공부한 내용, 제사, 묘사 등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간략히 기록하였다. 장동에 사는 친척 성호가 묘산의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점심을 먹고 돌아갔다거나 감기가 걸렸다거나 하는 일 등을 썼고,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은 그날의 간지와 날씨만 기록하였다.

이 일기는 아주신씨 인재파 전암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일기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기탁자는 신기흠이다.

아주신씨 인재파 전암 후손가의 「일기」는 일제 강점기 영남지역 양반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공부를 했는지 어떤 사람들과 교류를 했는지, 놀이 문화는 어떠한지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생활사 연구에 도움이 되며, 날씨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 기상 분석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